

2018 년월일 “(침례식)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벧후 3:18)

<도입>

“그리스인들은 지식을 위하여 배우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배우고, 현대인들은 썩먹기 위하여 배운다”(아브라함 헤셀)

그리스인들은 앎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 현대인들은 실용적 활용을 위해 공부도 많이 하고 정보도 애써 얻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무엇이든 배우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피조계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면 그분을 더욱 높여드리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침례식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나아가며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의 실용적 삶의 방식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워서 명망도 얻고, 성공을 이룰 때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강화하고 주장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죄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과 주변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 분노와 적개심과 소외감이 일어나서 오히려 비인간적인 미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성경을 배우고,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목적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라(성숙하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성숙함은 사랑으로 바로미터를 삼습니다. 만일 성경을 배우지 않고 주님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마치 결혼하고서도 싱글 때처럼 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로서 성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배우는 목적이 사랑이 아니면 미숙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배움으로써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사셨는지에 대한 최선의 길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담긴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안에서” 라는 말은 “나의 조건에 불문하고 그대로 받아 주시고 삶의 필요한 사랑의 선물을 더해주시는 가운데”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가 받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구비했어도 왜곡되고 빼뺏어집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 때 **주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대한 신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뢰함으로써 환경이나 사람을 탓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기꺼이 맡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뢰의 삶은 새 날과 새 가치를 열어주고, 새 성품과 유업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맺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그분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삶에 투신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침례 예식의 과정에서 물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 밖으로 나오므로써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의 삶에 성숙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길을 터득한 자신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봅시다.
2. 성경을 배우고, 베푸시는 은혜의 방식과 목적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